

## 2 칼빈의 신학 안에서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김선권 목사 / Strasbourg 대학교, 조직신학 박사과정

### 1. 들어가는 말

칼빈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두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두메르그에 의하면 칼빈은 역사상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동시에 가장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다.<sup>1)</sup>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의 부정적 이미지 혹은 긍정적 이미지에 의존한다.<sup>2)</sup> 로마가톨릭과 루터교에 의한 풍자만화(caricature)는 칼빈을 관용이 없는, 엄격한, 때로는 잔인한 인간으로 그렸다. 그는 믿음의 경험의 차원이 부재된 건조한 논

1) Emile Doumergue, *Le caractère de Calvin : l'homme, le système, l'Eglise, l'Etat* (La Cause, 1931), p. 61.

2) Jérôme Cottin, *Jean Calvin et la modernité de Dieu* (Strasbourg, Edition du signe, 2009). 캘러는 말한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끔찍한 편견에 싸여 있다.” Carl-A. Keller, *Calvin mystique : au cœur de la pensée du Réformateur*, Genève, Labor et Fides, 2001, p. 8.

리를 주장하는 차가운 교의학자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은 이미지’를 수정하면서 따뜻하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칼빈의 모습을 다시 그리기 위해 여러 학자들은 그의 삶에서 칼빈의 참 모습과 그의 신학에서 신비적, 경험적 차원을 재발견한다. 게다가 최근의 칼빈 연구들은 그의 신학의 핵심 개념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주목한다.<sup>3)</sup>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 종교개혁의 두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교리이다. 로마가톨릭 앞에서 종교개혁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개혁 두 번째 세대로서 칼빈은 두 가지 근본적 원칙을 설립해야 했다. 하나는 ‘구원의 확실성’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의 도덕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칭의’와 ‘성화’이다. 이것을 위해,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교제)을 그의 중심 사상으로 다시 취한다.<sup>4)</sup> 칼빈의 전체 신학 구도에 비춰 봤을 때, 그의 구원론과 기독교인의 삶의 교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와 연관되고, 그 위에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 됨과 성도의 개인적, 사회적 성화 역시, 연합 사상에 근거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은 그의 신학의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심점 위에 개혁교회의 신앙과 삶의 교리가 세워지

- 3) Philip Fisk, “Calvin’s Metaphysic of Our Union with Christ,”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Vol. 11, N° 3, 2009. Partee Charles, “Calvin’s Central Dogma Again,” in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18, 1987, p. 191–199. J. Todd Billings, “John Calvin’s Soteriology : On the Multiceted Sum of the Gospel,”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Vol. 11 no 4, 2009. Carpenter, Craig B., “A Question of Union with Christ? Calvin and Trent on Justific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64, no. 2, 2002. Mark A. Garcia, *Life in Christ : Union with Christ and Twofold Grace in Calvin’s Theology* (Paternoster, 2008). Dennis E. Tamburello,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Bernard of Clairvaux*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w, 1994). Adjémian, “L’union en Christ chez Calvin,” *L’actualité de Jean Calvin 1509–2009* (Lausanne, L’âge d’homme, 2009).
- 4) Willem van’t Spijker, “‘Extra nos’ and ‘In nobis’ by Calvin in a pneumatological Light,” In De Klerk, ed. Peter, *Calvin and the Holy Spirit*, 1989, p. 39.

고 실천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 신학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차츠멘(R. C. Zachman)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가장 넓은 신학의 맥락 안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sup> 맥그라스(A. E. McGrath)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개혁교회의 교리와 영성의 특징이라고 말하였다.<sup>6)</sup> 최근에 가르시아(M. A. Gracia)는 그의 박사 학위 논문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주제를 다루었다. 그는 칼빈에게서 칭의와 성화의 이중 은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기인하는 ‘두 개의 근본적 구원 은혜’(the two basic saving benefits)라고 말한다.<sup>7)</sup> 그는 이 주제에 관한 칼빈의 가르침은 그것이 다른 주요 신학적 주제 또는 사상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주제는 다양하고 풍요롭다고 주장한다. 가르시아에 따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의 구원론 안에서 결정적 사고로써 나타나 다른 신학의 주제를 ‘지배하는 의미’(the controlling significance)였다.<sup>8)</sup>

우리는 이 논문에서 첫째, 칼빈의 신중심주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상관관계를 살핀다. 흔히 이 두 사상은 칼빈의 신학에서 각각의 중심점으로만 파악됐지 상호관계를 주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아드제미안(Christian Adjémian)은 그의 논문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 5) Randall C. Zachman, “Communion cum Christo,” *The Calvin Handbook*, ed. Herman J. Selderhuis (Michigan, Eerdmans, 2009), p. 365. 부르너는 칼빈의 사상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절대적이며,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Emil Brunner, *Vom Werk des Heiligen Geistes* (Zurich, 1935), p. 33. 바르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칼빈에게서 중심개념을 구성한다고 말하였다. Karl Barth, *Dogmatique IV/3* (Genève, Labor et Fides), p. 201–203.
- 6) Alister E. McGrath, *Iustitia Dei*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 225.
- 7) Mark A. Garcia, *Life in Christ : union with Christ and Twofold Grace in Calvin’s Theology*, p. 3.
- 8) 위의 책, p. 18.

에서 칼빈신학의 중심 요소를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의 귀결로써 예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결코 신적 주권과 그리스도 연합의 특별한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sup>9)</sup> 반대의 경우에 그리스도 연합이 아닌 신적 주권만을 칼빈신학의 중심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이 둘의 상관관계는 칼빈신학을 여는 중요한 열쇠이다. 둘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파악한다.셋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성이 무엇인지 살핀다. 넷째,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회와 윤리의 관계를 살핀다.

## 2. 칼빈신학의 양극으로서 신적 위엄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 1) 신중심주의

브누와(J. D. Benoît)는 칼빈주의의 전체가 ‘신중심주의’라 불리는 근본 주장 위에 세워지고, 이로부터 칼빈주의의 신학, 삶, 교리, 경건 등 모든 것이 기원한다고 말한다. “가톨릭교회가 교회론을 주장한다면 칼빈주의는 신론을 주장한다. 또한 루터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리가 믿음을 통한 칭의라고 말한다면, 칼빈주의에게서 오히려 이 교리는 이차적이다. 이것은 첫째 교리의 귀결이다. 첫째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밀하는 신론이다. 신론은 모든 것이 뺨어 나가고 모든 것이 귀결되는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를 신중심주의라고 말한다.”<sup>10)</sup>

실제로 칼빈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신중심주의를 주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칼빈의 궁극적 관심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9) Adjémian, “L’union en Christ chez Calvin,” p. 177–178.

10) Jean-D. Benoît, *Jean Calvin. La vie, l’homme, la pensée* (Neuilly, 1933), p. 223–224.

높이면서’(*en éllevant son cœur*) ‘하나님의 위엄’(*devant la majesté divine*) 앞에 서는 것에 있다. 이것은 그의 신학 작업을 통해 주창되고, 설교를 통해서도 강조된다.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초월성을 그의 설교를 통해 선포하기를 원했다. 이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경배합시다.”라는 말로 그의 설교들이 끝마쳐지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1538년에 기록된 「제네바 신앙 교육과 신앙 고백」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을 창조주의 위엄을 아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sup>11)</sup> 그는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창조주의 위엄 안에서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경솔하고 어리석은 그의 정신에 의해 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sup>12)</sup>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설 때까지 결코 순수한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으며,<sup>13)</sup>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되기까지 결코 그들의 비참한 상태, 즉 자신의 실존의 상태를 정당하게 파악하지 못한다.<sup>14)</sup>

신적 위엄을 강조하는 것은 창조주에게만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 부여하는 모든 거짓 신학을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칼빈은 참 신학을 강력하게 신적 위엄을 강조하는 신학 안에서만 놓는다. 참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 높음과 낮음, 무한과 유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와 거리를 인식하는 것에서 더욱 분명히 발견된다. 그 결과 설교자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유비도 존재하지 않는다.”<sup>15)</sup> 이러한 이유에서 불가해한 신적 위엄은 칼빈의 사상 안에서 항상 강조된다.<sup>16)</sup>

11) CO 22, col. 33. 디모데전서 27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아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합하고 연합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칼빈은 주장한다. CO 53, col. 320.

12) CO 22, col. 34.

13) IRC III.ii.23.

14) IRC I.i.3.

15) CO 47, col. 471.

16) CO 53, col. 95.

## 2) 신중심주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

칼빈사상에는 상보적 양극이 존재한다. 즉, 신적 주권과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칼빈은 한편 접근할 수 없게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 위엄, 능력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 중요성에 있어서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구원을 강조한다.<sup>17)</sup> 존재론적 차이를 강조하는 신적 위엄은 그 자체 목적만을 가진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지향한다. 비록 하나님과 인간, 이 두 존재 사이의 존재론적 긴장이 개혁자의 사상 안에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분리, 거리, 차이는 보다 강력한 연합, 친밀, 가까움을 고려한다. 지젤(Gisel)의 말은 정당하다. “신중심주의는 매우 특별한 구체적, 결정적 기독론과 나란히 간다. 엄격하게 신학의 질서에 맞춰 하나님의 영예를 회복시키는 것과 인간을 그의 안정성 안에 돌려놓는 것, 그것은 이중적이고 동시적인 종교개혁자의 최상의 목표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단절과 거리 놓기는 단순한 분리를 향하는 것이 아닌, 반대로 독창적인 의미에서 강력하고 특별한 유기적 결합을 말한다.”<sup>18)</sup>

칼빈에 의하면 성서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긴 거리로 인해 인간 존재는 수단을 필요로 하며, 그리스도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sup>19)</sup> 그 결과 신적 위엄을 강조하는 칼빈의 신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학을 암시하고, 준비하고, 예전한다. 칼빈은 그의 디모데전서 첫 번째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말한다.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와 분리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의 위엄은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죽

17) Christoph Strohm, “La théologie calvinienne : singularité des idées fortes,” *Religions & Histoire*, Hors-série n° 1 : Jean Calvin, un christianisme réinventé, 2009, p. 35.

18) Pierre Gisel, *Le Christ de Calvin, Jésus et Jésus-Christ* 44 (Paris, Desclée, 1990), p. 30-32.

19) CO 54, col. 574.

음의 심연에 있는 것과 같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연합의 수단인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할 것임을 증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선을 구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sup>20)</sup> 다른 설교에서도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연합을 가진다.”<sup>21)</sup> 접근할 수 없는 신의 초월성은 신성의 본질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접근된다.<sup>22)</sup> 그러므로 칼빈의

20) CO 53, col. 10-11.

21) CO 50, col. 463.

22) CO 49, col. 814.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위엄이 접근된다는 사상은 칼빈에게서 ‘숨겨진 하나님’(*Deus absconditus Dieu caché*)과 ‘계시된 하나님’(*Deus revelatus Dieu révélé*) 사상을 요약한다. 칼빈의 숨겨진 하나님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시 밖에서 숨겨진 하나님’(*Dieu caché en dehors de la révélation du Christ*)과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숨겨진 하나님’(*le Dieu caché dans la révélation du Christ*)을 구별해야 한다. 칼빈에게서 숨겨진 하나님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기독론적 방식으로 파악된다. 숨겨진 하나님은 루터에게서 십자가 위에 계시된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칼빈에게서 그리스도의 계시 밖에 숨겨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시에 이르기까지 숨어 계신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계시 밖에 숨겨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시된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숨겨져 있지 않다.” *IRC I .v.8*.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숨겨져 있었던 비밀의 계시이다.” *IRC II .ix.4*. “아들이 그의 빛으로 비추지 않는다면 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서 숨겨져 계신다.” *IRC III .ii.1*. 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령의 계시에 의해 밝혀지고, 믿음은 숨겨진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숨겨진 하나님은 동시에 그 자신을 계시하면서 여전히 숨는다. 칼빈은 여전히 숨겨진 하나님으로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 점에서 칼빈신학과 개혁신학의 특징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감추임’(hiddenness)은 인간의 어떤 감각으로도 파악될 수 없다. 이것은 믿음조차도 접근 불가하다. 그렇다면 그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은 무엇 때문인가? 첫째는 인간성의 존재론적 한계 때문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동적 은폐로써 신적 계시 자체의 제한성 때문이다. 전자가 인간 존재와 그의 한계성에 기인한다면, 후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로부터 숨기시기로 결정하셨던 사실에 기초한다. 칼빈은 우리

신중심주의는 자체 목적만을 가진 것이 아닌,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지향하는 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학은 신중심주의 빛에서만 그것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잘 드러난다. 칼빈의 신중심주의와 기독론 중심주의는 상호적이며 상보적이다.

### 3.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주제가 비록 「기독교강요」 3권에서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학의 주제인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다루어질 때 그 의미와 정의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sup>23)</sup> 구원은 성부에게서부터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성도에게 주어진다.<sup>24)</sup> 칼빈의 관

가 미처 해결할 수 없는 신정론의 문제를 그리스도 계시 안에 숨겨진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 영광의 신학자 또는 소르본 신학자들은 한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루더)에 계시된 하나님, 다른 한편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칼빈)에 계시된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들은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지도, 필수적이지도 않는 그려면서도 위험하기까지 한, 즉 접근할 수 없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칼빈에게서 그의 계시 안에 숨겨진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한계를 철저히 규정하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로 하신 것에 대해 참 지혜는 침묵하는 데 반해서, 영광의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감추기로 결정한 것을 탐구하기를 원한다. 칼빈이 '교황의 신학자'(le théologien de la papauté)라고 비판하는 그들은 그리스도, 즉 그분의 겸비와 순종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교만한 짐승'들은 그리스도의 낯아지심을 오히려 부끄러워한다.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접근할 수 없는 신성에까지 오르기를 원한다. 그러나 믿음이 낮아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늘까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23) 1541년 「기독교강요」 불어판에서 칼빈은 "모든 우리 구속의 산비는 성부, 성자, 성령"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Calvin,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1541) Tome I, Edition critique par Olivier Millet, p. 566. Olivier Fatio, "La conception du salut chez Calvin," *Le salut chrétien*, sous la direction de Jean-Louis Leuba, Jésus et Jésus-Christ 66 (Paris, Desclée, 1995), p. 167-176. 빌링스(billings)는 연합과 관계해서 삼위일체의 드라마라는 말을 사용함. Billings, "John Calvin's Soteriology : On the Multicentered Sum of the Gospel,"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Vol. 11 no 4, 2009, p. 435.

점에서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구원의 동력인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그의 은혜로운 사랑이며, 그리스도는 질료인이며, 그분의 순종으로 성도는 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형상인은 믿음이다. 목적인은 하나님과의 의의 증거와 하나님께 영광이다.<sup>25)</sup>

#### 1) 연합의 원천으로서 성부

창세기 1 : 27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를 표상한다. 칼빈은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당시의 상태와 현존재의 상태를 구별한다. 이 두 사이에 타락이 놓인다. 그리고 이 타락으로 말미암은 현존재의 부패, 비참은 선한 창조였던 '자신 안의 본성에서부터'(en lui de nature)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본체의 속성, 말하자면 인간 존재 안에 처음부터 새겨진 것이 아닌 그에게 도달된 우발적 특성이다.<sup>26)</sup> 말하자면 '죄의 원인'(peccati causa)은 하나님이 아닌, 죄인 자신에게 있다.<sup>27)</sup> 그러므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의 악함을 인간 본성의 저자,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주어지고, 더구나 변명할 수조차 없다. 죄는 모든 인간 종에게 퍼져 있고, 이성, 감성, 의지, 인간 전체까지 퍼져 있다. 죄는 자신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며,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까지 훼손한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 안에 있었던 생명은 죽음,

24) Garcia, *Life in Christ : Union with Christ and Twofold Grace in Calvin's Theology*, p. 24.

25) *IRC* III.xiv.17.

26) *IRC* II.i.11.

27) "죄의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죄의 근원은 항상 죄인 그 자신의 인격 안에 있다." *Le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1, 24.

형별, 죄로 대체된다. 죄로 인해 깨져 버린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깨어짐, 그분으로부터의 소외, 그분에 대한 훼손된 지식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회복된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중재자 없이는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없었다.”<sup>28)</sup>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실 때만이, 우리는 충만하고 전고한 연합을 하나님과 함께 가진다.”<sup>29)</sup> 타락이 우리로 소외시켰던 처음의 연합을 그리스도만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죄인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칼빈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성부의 창조 이전의 선택 의지에 기초한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천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예정(*prédestination*)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le conseil éternel*)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인간에 대해 행하기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셨다.”<sup>30)</sup> “주께서는 그가 택하신 사람들을 자녀로 부르시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연합하게 하며 그 결과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sup>31)</sup>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맡겨지게 될 때, 이것은 아버지의 선물에서 기인한다…… 아버지가 독생자에게 택함받은 자들을 주시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sup>32)</sup> 즉, 성부가 자녀가 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이다. 성부가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연합의 원천이라는 것은 연합의 저자, 다른 말로 구원의 저자(*l'auteur du salut*)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번째 설교에서 칼빈은

28) *IRC* II.vi.1.

29) *IRC* II.xvi.3.

30) *IRC* III.xxi.5.

31) *IRC* III.xxiv.2.

32) *IRC* III.xxii.7.

이렇게 설교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mérite*)를 보는데 근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그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졌는지 묻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원인을 자기 자신 밖에서 찾지 않으셨다 (즉, 자기 자신 안에서만 찾으셨다).”<sup>33)</sup> 구원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그것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께서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밖에서 찾는다는 의미는 구원의 확실성을 신뢰할 수 없는 인간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닌, 인간 존재 밖에서 찾는 데 있다. 성부의 예정은 구원의 필수적 조건이므로 구원이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며,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인간적 모든 행위들, 즉 고행, 성자승배, 성유물, 형상들, 죽은 자를 위한 예배, 순례, 면죄부 등 어떤 것도 구원을 위해 요구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말씀이 중언하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만이 성도들을 당시의 무지와 의심과 미신 안에 깊게 잠겨 있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효과적으로 견질 수 있었다.

## 2) 우리 몸을 입으신 성자

칼빈은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즉 기독론을 2권에서 다룬다.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같은 권 1~5장을 통해 그는 인간의 죄론을 우선 취급한다. 칼빈은 ‘모든 인류’와 ‘인간의 모든 부분’에 퍼져 있는 원죄의 파급을 강조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구속의 능력을 강조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죄로 인한 인간 존재의 현실성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그래서 인간의 죄론을 다룬 후에, 칼빈은 2권 6장 시작에서 자신의 고귀성을 상실한 인간 존재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대비한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구원의 질료’(내용, *matière*), 말하자면 구원의 토대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sup>34)</sup>

33) *CO* 54, col. 48.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선 성육신을 통한 그리스도의 우리와의 연합이 전제된다. 구속을 위해서, 성자는 인간 몸을 입으시고 인간 본성과 연합하신다. 즉,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우리와의 연합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2권에서 이 점을 설명한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의 것을 취했고 그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의 본성상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공통의 본성을 취해, 우리의 육체로 자기의 육체가, 우리의 뼈로 그분의 뼈가 되셨다. 우리와 하나가 되시며 그에게 고유한 것을 교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유한 것을 기꺼이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큰 확신을 가지게 된다.”<sup>35)</sup>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우리와 함께 공통적으로 가지는 본성을 통해 그와 함께 우리가 가지는 교제의 보증을 주셨다.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면서 그분은 죄와 함께 죽음을 정복했다. 그로 인해 승리와 개가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sup>36)</sup>

인간 본성과의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부의 파송에 근거한다. “인간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성자는 성부 하나님께로 보냄받으셨다. 그의 직무는 인간의 구속에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되기 위해 오셨다.”<sup>37)</sup>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분의 인격과 관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며, 그분의 사역과 관계해서 구속주이시다. 그분은 중보와 구속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길을 여셨다. 우리 구원의 전체와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마치 죄인처럼 여겨 죄인이 받는 세례를 통해

34) *Le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3, 16. “모든 우리 구원의 질료는 다른 곳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다.” (*toute la matière de nostre salut ailleurs qu'en Christ.*)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à Timothée*, 1, 1. “모든 우리의 구원의 질료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toute la matière de nostre salut réside en lui seul.*)

35) *IRC* II, xii, 2.

36) *IRC* II, xii, 3.

37) *CO* 47, col. 468.

우리와의 연합을 보여 준다. 성육신과 세례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의 연합의 표시(*le signe de son union avec nous*)이다.<sup>38)</sup> 칼빈은 구속론에 있어서 만족설의 입장을 다시 취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만족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겪으셨다. 그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셨다. 의로우신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그의 의를 통해 죄인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셨다. 그리스도는 죽으시면서 죽음을 파괴하였다. 이로 인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 “희생에 의해 우리 죄의 속죄는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은 완성됐고 성취됐다. 의의 시작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에 있다. 성취는 죽음이 파괴되고 생명이 지배하는 데 있다.”<sup>39)</sup>

### 3) 성령의 사역, 그리스도의 현재화

우리가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는 한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해 사역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유익에 참여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그 자신에게 참여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객관적 사실로써 ‘우리를 위해’(*pro nobis*) 사역하셨다는 의미에서 그와 함께 우리의 연합을 다시 찾기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 달리 말하면 그분은 ‘우리 밖에서’(*extra nos*)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던 내용을 「기독교강요」 2권에서 다루었던 칼빈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그의 「기독교강요」 3권을 시작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고, 고난받으셨던 모든 것은 무익하고 어떤

38) *CO* 46, col. 579.

39) *Le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4, 25.

중요성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며, 우리 안에 살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어야 한다. 그는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까지 그가 소유한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sup>40)</sup>

하지만 문제는 인성의 속성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봄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는 여기(*ici*), 아래(*en bas*), 우리 안에(*en nous*) 오셔서 거하실 수 있겠는가? 높이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구속의 객관적 사실에서 구속의 주관적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역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칼빈은 「기독교강요」 3권에서 성령 사역론을 통해 ‘구원의 역사와 구원 서정’(구원 적용)(*l'histoire de la rédemption et l'application de la rédemption*)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설립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영(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와 연합한다.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의 아래 두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다.”<sup>41)</sup> “우리는 그의 영(성령)의 비밀스러운 능력(*la vertu secrète de son Esprit*)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sup>42)</sup>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우리와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끈’(*lien*)이라고 말한다.<sup>43)</sup>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음에

40) *IRC* III.i.1.

41) *IRC* III.i.3.

42) *IRC* III.xi.5.

43) *IRC* III.i.1. 로마서 15:30 주석에서도 성령은 우리 연합의 끈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칼빈은 성찬을 다를 때,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을 연합의 수단으로써 성령의 사역을 강조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현하는 끈이다. “이 연합의 끈은 성령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함께 연합하며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서로와 같은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내려온다. 성령은 우리

서 탄생한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신적 구속 사역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며, 동시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주요한 사역’(*la foi est son principal chef-d'œuvre*)이다.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줄로써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인간 안에서 믿음을 일으킨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 됨(양자)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도의 마음에서 내적으로 증거한다. 믿음은 지식 없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기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지식으로써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동시에 성서 안에서 발견되는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의 참된 지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 즉 열매이다. 지식은 조건이지만, 연합의 결과로써 주어진다. 그리고 이 지식은 더욱 연합을 견고하게 한다. 칼빈의 신학 안에서 지식과 연합 사이의 상관관계가 파악된다. 성령은 중생의 영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며, 성서의 지식을 계속적으로 성도 안에서 조명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게 하며, 자녀 됨의 확신을 견고히 하며, 또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 4. 연합의 본성

##### 1) *unio mystica*

칼빈은 「기독교강요」 라틴판에서 두 번 ‘신비적 연합’(*unio mystica*)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다루는 곳에서, 두

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유일한 교제의 수단이다.” *IRC* IV.xvii.1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몸과 피의 본체로 우리에게 외적 표징들뿐만 아니라 그의 영으로 내려오신다.” *IV.* xvii.24.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결합된다.” *IRC* IV.xvii.28.

번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현과 관계해서 사용한다. 그가 구원론에서 말했던 신비적 연합의 구절을 인용한다. “단순한 사람들을 그들의 간교로 속이지 못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될 때까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선을 가지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나는 우리의 머리와 가지는 이 결합(*conjonction*),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서의 거주(*demeure, habitation*),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는 신비적 연합(*mystica unio, l'union sacrée*)을 최고의 단계로 높인다.”<sup>44)</sup> 이 인용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를 발견할 수 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의 결합’,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거주하심’, ‘신비적 연합’, 게다가 다른 곳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와의 교제’(communion), ‘실체적 연합’(*union substantielle*), ‘그리스도로 옷 입음’(*revêtu*), ‘그리스도에게 접붙임’(*greffe*), ‘그리스도에게 참여함’(participation), ‘그리스도와 하나 됨’(*un*), ‘그리스도의 거주’(habitation),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notre*), ‘그리스도의 현존’(*présence*), ‘그리스도와의 결혼’(marriage)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친밀성 또는 하나 됨과 관련된 다양한 어휘들로 표현했던 것이다.

앞서 인용한 구절에서는 칼빈이 ‘신비한’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mystica*’로 썼지만, 불어판(1560)에서는 ‘신성한’(*sacré*)으로 번역하고, 다른 곳에서는 ‘영적인’(*spirituel*)이라는 말로 번역한다. 칼빈이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 ‘신비한’(*mystica*)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 것은 이 연합이 무엇보다도 ‘인간 오성의 한계를 넘어서는’(*dépassant notre entendement*) 것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이다.<sup>45)</sup> 그리스

도와의 연합을 위한 사역은 신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의 이해와 감각에 제한되지 않으며, ‘자연적 질서를 넘어서’(*par tout ordre de nature*)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이며, 불가해한 것이다.<sup>46)</sup> 그 결과 칼빈은 이 연합을 ‘영적인 연합’이라고 여러 곳에서 주장한다.<sup>47)</sup> 그렇다면 왜 이 연합은 영적인 연합일까? 이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지를 물을 때, 분명하게 답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가?

우리가 연합하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좌정하신, 그래서 현재적으로 그곳에서 신적으로 통치하시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다. 즉, 들려진 그리스도, 위에 계신 그리스도, 높이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하고, 그분과 현재적 관계를 가진다. 높이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여전히 교회와 성도와 연합하시는 권능의 주님이시다. 부활 후, 영광스러운 몸이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좌정하셨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일지라도, 육체적 또는 공간적으로는 현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그는 육체를 따라서는 성도와 연합하기 위해 내려오시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통치 능력을 받으셨기에, 그가 비록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육체적으로는 성도와 연합을 위해 내려오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편에서 마치 육체적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현존하시며 성도와 연합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신다. 다시 말하면 비록 그리스도의 몸은 위

46) CO 51, col. 491. Carl-A. Keller, *Calvin Mystique*, p. 185.

47) “결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가지는 영적인 연합의 생생한 이미지와 같다.”

CO 51, col. 741. “우리가 그리스도와 갖는 영적인 연합은 영혼뿐 아니라 몸에 도 관계한다.”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6 :

1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는 이 영적인 연합은 잘 보존되어야 한다.” CO 28, col. 152.

44) IRC III.xi.10.

45) IRC III.ii.24.

에 계실지라도, 마치 그 자신이 육체적으로 성도와 현존하며 연합하는 것처럼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도와의 연합에서 육체적 현존과 연합의 동일한 효과와 효력을 주신다. 성도는 승천하신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연합의 효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칼빈과 칼빈 이후의 개혁신학에서 ‘신비한 연합’(*unio mystica*) 사상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바라보게 하는 ‘마음을 높여서’(*sursum corda*)의 사상과 연결된다. 더욱이 이 연합 사역을 위한 성령의 사역은 특별하며 본질적이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내려오게 하시며, 그 내려오신 그리스도로 인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연합의 유익과 열매를 얻게 되며, 그리고 그 성령은 다시 우리를 ‘위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올려 주신다.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하장 또는 내려오심과 같은 차원에서 성령에 의한 성도의 상승 또는 오름이라는 사상이 칼빈신학의 핵심 사상인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마음을 위로 향하여, 말하자면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왜 이 연합은 영적인 것이며, 파악하기 힘든가? 칼빈에게서 이 연합은 하나의 상태(*un état*), 하나의 과정(*un processus*), 그리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여행(*un itinéraire*)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데 있다.<sup>48)</sup> 하지만 이 연합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완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칼빈은 이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너무나 완벽한 연합’(*nostre union si parfaite en Christ*)이라 표현했다.<sup>49)</sup> 완벽한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

48) CO 46, col. 98. 누가복음 1:38의 설교에서 칼빈은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신비, 놀라운 비밀로써 불가해한 것(*incompréhensible*)이며 따라서 그런 비밀을 경외해야(adorer) 한다고 설교한다.

49) CO 5, col. 549.

도와 연합된 자의 그 연합이 어떤 것에 의해서 분리될 수도, 침해받지도 않는다는 것을(*inséparable, inviolable*) 의미한다.<sup>50)</sup>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확실성과 성도의 견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 2) 연합의 유비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의 위격(*personne*)으로써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통일(연합)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혼합된 두 본성이 아닌 연합된 한 위격으로 계신다. 칼케돈 신조에 따라,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 「기독교강요」 2권 17장의 시작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실체의 혼합(*confusion de substance*)이 아닌 위격의 통일에 있다. 즉, 그분은 그의 신성을 그가 취하셨던 인성에 결합하고 연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별된 두 위격을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유일한 위격을 가졌다.”<sup>51)</sup>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통합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칼빈신학의 근본 원리 중의 하나인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extra calvinisticum*)의 원리는 우리의 주제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육체에 제한되지 않고, ‘육체 밖에서’(*extra carnem*) 온 우주를 채우신다. 그는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 사상을 「기독교강요」에서 두 번 언급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한한 그의 신적 본질(*essence*)을 우리의 본성과 연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간 본성에 구속되거나 갇히는 것 없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셨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기적적으로 처녀의 태중에 계셨고, 세상에서 사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따라 그는 항상

50) CO 42, col. 132–33, col. 158.

51) IRC II.xiv.1.

예전처럼(즉, 성육신 당시에도 성육신 전과 같이) 우주를 채우고 계셨다.”<sup>52)</sup>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콤은 “유한이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finitum non possit capere infinitum*)라는 개혁신학의 명제와 맥을 같이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몸에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제한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편재성’(*ubiquité, omniprésence*)의 ‘신적 속성’(*propriété*)이 성육신 때도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이다.<sup>53)</sup> 우리는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도의 인격은 연합되더라도, 여전히 각자의 고유성(속성)을 보유해야 한다. 성도의 정체성은 연합 후에도 계속된다. 연합 후에 성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결코 흡수되거나, 혼합되지 않는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구별될 수 있지만 나누어질 수도, 혼합될 수도 없다

52) *IRC* II.xiii.4, *IRC* IV.xvii.30.

53) 한편 그의 인성의 속성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의 속성을 보유한다는 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 역시 유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 역시 몸의 속성, 즉 ‘공간성’(*localisation*)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공간성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칼빈에 의하면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능력, 위엄, 영광과 함께 세계를 통치하신다(*IRC*, IV.xvii.18). 루터에게서 속성의 교류(*communication des idiomes*)란 그리스도의 능력, 편재의 신적 속성을 그의 인성에 교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속성의 교류로 인해 성찬 때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빵의 속성 아래에, 안에, 함께(*sub, in et cum*) 하실 수 있다. 칼빈은 루터의 공재설을 비판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역시 인성과 신성, 각각의 속성을 지키기 때문이다. 칼빈은 말한다. “본성 각각은 그의 속성(고유성)을 보유한다”(*Chacune des deux natures a retenu sa propriété*). *IRC* II.xiv.1.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한 위격에 두 본성이 통전적으로 그의 고유한 본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연합된 것을 볼 수 있다.” *IRC* IV.xvii.30. 루터의 속성의 교류는 칼빈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속성의 변용’(*transfert des propriétés*)이며 츠빙글리 관점에서는 속성 교류의 부적당한 남용이었다.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유한으로서 공간적으로 한정된다. 승천 후에 그리스도의 몸은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의 몸은 성찬 때 공간적으로 현존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 인성과 속성은 변용되지 않는다.

는 기독론의 양식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가 뒤따른다. 이 문제에 대해 방델은 이렇게 말한다. “칼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혹은 교제를 말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흡수 혹은 인간의 인격을 다소라도 감소시키거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차원으로 끌어오는 신비적 동일화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속성과 그리스도의 속성이 통전적으로 존속하게 하면서도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그래도 역시 가장 친밀하게 이루어진다.”<sup>54)</sup> 칼빈은 「기독교강요」 3권 2장 24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실체적 연합으로 표현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며, 그는 우리와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붙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오성을 넘어서는 놀라운 결합으로, 날마다 더욱더 같은 실체(*une même substance*)로 우리와 연합하신다.” 여기서 같은 실체라는 것은 그리스도화, 즉 제자됨, 그리스도를 따름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어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신성화의 불가능성은 유한이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있지만, 인간 존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연약성 때문이다.<sup>55)</sup> 이 육체 안에 사는 한 이 연합은 시작되지만, 완성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연합은 ‘이미’(already)와 ‘아직 아니’(not yet)의 과정에 있다.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에게서 육체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겸손이 요구된다. 칼빈에 의하면 이 궁극적이고 완전한 연합은 종말에 완성된다. 칼빈은 말한다. “이 땅에서 열망하는(aspirer) 천상의 연합(*ceste union céleste*)으로 그리스도가 그 자신에게로 우리를 모으실 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여기서(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sup>56)</sup>

54) F. Wendel,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Paris, Presse universitaires de France, 1950), p. 177–178.

55) Philip Fisk, “Calvin’s Metaphysic of Our Union with Christ,”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Vol. 11, N° 3, 2009, p. 312.

56) *CO* 46, col. 798.

## 5. 기독교 윤리의 토대인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은혜의 수단

### 1) 이중은혜 : 칭의와 성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 연합으로써 기독교인 삶의 근거이다. 칼빈이 「기독교강요」에서 결코 윤리학의 파트를 따로 할애하지도, '윤리'(ethica, éthique)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독교인을 위한 도덕 혹은 윤리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sup>57)</sup> 월리스(Wallace), 방델(Wendel), 윌리스 와킨스(Willis-Watkins), 한스(Hanns), 그리고 탐브레라(Tamburella) 이들 모두는 성도의 삶의 중심적 특징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였다. 칼빈 신학의 역동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삶을 강력하게 변형하는 (되는) 경험 속에서 발견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이상은 그리스도의 삶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다. 그 결과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자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과제를 따른다.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자는 '이중은혜'(double grâce), 즉 칭의와 성화의 은혜에 참여한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이중은혜를 가져온다.<sup>58)</sup> 「기독교강요」 3권 11장 1절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에게 참여할 때, 칭의와 성화의 이중은혜를 얻는다고 말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

57) Günther H. Hanns, "Ethics and Church Discipline," *The Calvin Handbook*, p. 332.

58) Jean Boisset, "Justification et Sanctification chez Calvin," *Calvinus Theologus*, ed. Hrsg., W. H. Neuser (Neukirchener, 1976), p. 131~148.

으로 우리는 그를 영접하고 소유한다. 또한 그에게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이중의 은혜를 받는다. 첫째는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하늘의 심판자 대신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다. 둘째로 삶의 거룩과 순결함을 묵상하기 위해 그의 영으로 성화가 된다." 갈라디아서 2:20 주석에서도 그리스도의 거주의 용어로 이중은혜를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중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사신다.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그리고 모든 우리의 행위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사신다. 둘째, 우리가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의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분 안에 있게 하시는 방식으로 사신다. 첫 번째 삶은 중생에 속하며, 두 번째 삶은 의의 무상의 전가에 속한다." 이 이중은혜는 한편에서 구원의 법정적인, 다른 한편에서 구원의 효과적(변형적)인 두 측면을 나타낸다.<sup>59)</sup> 아담의 타락

59) 하지만 루터신학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중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칭의 속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성화가 포함된다. 즉, 루터의 칭의 개념은 '법정적 측면'과 '변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칭의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 주심,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화시키는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변형'(transformation)이다. 전자는 성도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그는 온전하게 의롭게 된다. 반면 후자는 루터가 병의 치료와 비교했던 계속적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루터에게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justificari)는 말은 인간이 의인으로서 고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사실을 말하자면, 칭의는 새로운 상태 안에 있는 확실한 중생이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과 같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진보를 향한다. 실제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아직도 의롭지는 않지만, 의를 향한 동일한 방향,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의롭게 되는 자는 누구든지, 항상 죄인으로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며 궁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인해 전적으로 완전하게 의인으로 고려된다. Karsten Lehmkühler, "Sanctification et vie dans l'Esprit," *Introduction à l'éthique, Sous la direction de Jean-Daniel Causse et Denis Müller* (Genève, Labor et Fides, 2009), p. 245. 하지만 칼빈의 신학에서는 성화가 단순히 칭의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이 칭의가 성화의 원인이 아니다. 칼빈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보다 근본

은 우리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의 결과로써 도덕적 무능력 앞에 있게 하였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새로운 인간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며, 동시에 도덕적 책임을 가진 자가 되게 한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의 소명으로 회복시키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칼빈은 믿음을 통한 칭의를 ‘기독교 종교의 본질적 항목’(*le principal article de la religion chrétienne*)이라 여겼다.<sup>60)</sup> 칭의는 율법의 실천, 즉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밖에 있다. 그리스도와 죄인 사이에 ‘놀라운 교환’(*l'échange admirable*)에 기초한다.<sup>61)</sup> 제네바교회의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교한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있다. 그분은 갇히시고, 우리는 자유롭다. 그분은 정죄당하시고 우리는 용서받았다. 그분은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는 영예롭다. 그분은 지옥의 심연으로 내려가셨고, 하늘 왕국은 우리에게 열렸다.”<sup>62)</sup> 그리스도는 놀라운 교환을 통해 성도들에게 의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 “의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있다.”<sup>63)</sup> 즉,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기 때문

적 원인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했다. 이 점에서 루터교 전통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칭의는 논리적 혹은 시간적 우선성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도덕주의자가 그들의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과 같이 성화가 논리적, 시간적 우선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중의 은혜, 칭의와 성화는 구별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것, 동시적인 것으로 칼빈에게서 나타난다. 이 두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칭의와 성화의 인과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과의 주장을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동반된다는 점이다.

60) *IRC* III.xi.1.

61) *IRC* IV.xvii.2.

62)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관한 이사야 53번째 설교에서. “Voilà Jésus-Christ, le Fils unique de Dieu, qui est emprisonné, et nous sommes délivrés! Il est condamné, et nous sommes absous! Il est exposé à tous les outrages, et nous sommes établis en honneur! Il est descendu aux abîmes d'enfer, et le Royaume des cieux nous est ouvert.”

63) *IRC* III.xv.1.

에 의롭게 된다. 이 의는 죄 용서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회복이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게 된 죄인은 그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sup>64)</sup> 칭의는 소명에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적 과정을 뜻한다.<sup>65)</sup> 왜냐하면 루터와 같이 칭의받은 인간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기’(*simul peccator, simul justus*) 때문이다. 그는 의인으면서도 여전히 은총의 대상, 즉 은총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

무엇보다 칼빈은 믿음을 통한 칭의와 함께 동시에 성화를 강조한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 또한 그리스도는 그의 영의 성화 없이는 알려질 수 없다. 그 결과 믿음은 어떤 것에서도 선을 향한 경향 성과 분리될 수 없다.”<sup>66)</sup> “우리의 하나님과의 결합(*conjonction*)이 언급될 때, 우리는 이 줄이 거룩함(*sainteté*)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표는 거룩함이다.”<sup>67)</sup> 구원은 지금 여기서 성도의 인격의 심오한 변형을 통해 진보하는 하나님의 현 실태이다(*une réalité*). 칼빈에 따르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할 때 주어지는 이중은혜의 하나로써 성화 혹은 중생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성도가 변형되는 데 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다.<sup>68)</sup> “모든 신자는 이 목표(현세의 삶에서 의의 완전성, *une parfaite justice*)를 열망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날 흠 없고 순수한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세의 삶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것도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profiter de jour en jour*) 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죄 된 육체를 벗어버린 후 우리 주와 충만하게 결합할 때, 그때에야 이 목표에 우리는 도

64) *IRC* III.xvii.8.

65) *Le commentaire sur Romain* 8, 30. 같은 주석서 4 : 6에서 또한 칼빈은 “무상의 의는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계속적으로 지속한다.”라고 말한다.

66) *IRC* III.ii.8.

67) *IRC* III.vi.2.

68) Léopold SCHÜMMER, “L'homme, Image de Dieu : Le corps, temple du Saint-Esprit dans la synthèse biblique de Calvin,” *Revue Réformée*, 1996, p. 73–77.

달할 것이다.”<sup>69)</sup>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과정에 있는 이 중의 은혜,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그리스도에게서 받아 이 성도의 완전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2)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시작, 유지, 견고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써 교회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칭의와 성화의 원천이며, 칼빈 윤리의 토대임은 분명하다. 이제 ‘구원(은혜)의 외적 수단’(*externis mediis salutem, extérieur moyen de grâce*),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회론적 차원을 다루어야 한다. ‘신비적 연합’이란 표현과 그의 신학에서의 신비적 요소 때문에, 칼빈을 신비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보려는 학자들이 있다. 신비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달라지겠지만, 칼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한 것은 이 연합을 위한 매개적 수단을 전제하는 데 있다. 매개적 수단 없는 하나님과의 비매개적 연합을 주장하는 그런 신비주의는 칼빈에게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교회론 안에서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그런 비매개적 신비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 6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28번, 성령과의 연합을 7번 언급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11번이나 다룬다.<sup>70)</sup>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는 죄 용서도, 구원도 소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71)</sup> 「기독교강요」 4권의 제목(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며, 그분 안에 보유하도록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 혹은 도움)은 이를 보여 준다. 이 제목에 의하면 이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

69) *IRC* III.xvii.15.

70) Jean Calvin,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J. D. Benoit, Paris, 1963, 5<sup>e</sup> vol, p. 375.

71) *IRC* IV.i.4.

제가 시작되며, 그것이 견고해지고, 그것의 완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암시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한다. 외적 수단으로써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즉 들려진 말씀으로써 설교, 보여진 말씀으로써 성찬은 교회를 통해 제공된다. 또한 성경 읽기, 기도 등의 수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한다.<sup>72)</sup> 이 점에서 칼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례를 받는다.”라고 강조한다.<sup>73)</sup> 설교와 성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유지하고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구원과 영생을 선포하도록 하는 사역자를 주셨다. 사역자의 바른 설교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하는 설교에서 찾 아진다. 칼빈에게서 세례는 외적 표시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지는 교제를 우리에게 선언한다.<sup>74)</sup>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으로,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표시이다.<sup>75)</sup>

성찬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진정으로(*réellement*) 연합 한다. 칼빈에게 성찬의 목적은 첫째,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며 둘째, 그의 본체에 연합한 후 모든 그의 은혜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다.<sup>76)</sup> 그리고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있을지라도, 성령에 의해 효과적으로 실현된다. 하지만 신비적 연합에서 말한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그의 몸과 뺨 사이의 연합을 위해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성도가 하나님 우편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즉,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

72) Wendel,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p. 270.

73) *CO* 49, col. 727.

74) *IRC* IV.xvi.7.

75) *IRC* IV.xv.5.

76) *IRC* IV.xvii.10.

하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 우리가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것이다.<sup>77)</sup> “믿음은 우리의 오성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 즉, 성령은 진정으로 장소에 의해 분리된 것들을 연결한다.”<sup>78)</sup> “비록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심판하기 위해 오실 때까지 하늘에 계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영의 비밀스러운, 불가해한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몸과 피로 먹이시고,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다.”<sup>79)</sup>

제다가 그리스도의 몸, 또는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으로써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에서 나오는 ‘성도의 연합체’(*union <communauté des fidèles>*)이다.<sup>80)</sup> 칼빈에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과 교회가 분리되는 것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교회의 일치를 가져온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다면, 우리는 서로서로 일치해야 하고, 온몸을 통해 이 연합은 확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sup>81)</sup> 주님이 그분의 지체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이 연합의 근거를 칼빈은 몇 가지로 언급한다. 그것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중보자, 하나의 참된 교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세례 등이다.<sup>82)</sup> 칼빈에게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근본적으로 교회적 연

77) Karsten Lehmkühler, “Parole et Sacrements,” *Introduction à la Théologie Systématique*, éd. André Birmelé, Pierre Bühler, Jean-Daniel Causse et Lucie Kaenell, Geneve, Labor et Fides, 2008, p. 332.

78) *IRC* IV. xvii. 10.

79) *Confession de la Rochelle*, 36.

80) 칼빈은 교회를 ‘신비적 몸의 연합’(*l'union du corps mystique*)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CO* 5, col. 545.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한 특징이다.” *IRC* IV. I. 3.

81) *CO* 51, col. 523.

82) *CO* 32, col. 460. “우리의 주님께서 그분의 지체들 사이에 계시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연합에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우리는 그분의 교회에 속하는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적 결합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 한 분 구속자, 하나님의 참된 교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세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서로서로 결합해야 한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당한다면 우리는 모두 동정을 가져야 한다.”

합과 사랑의 사회적 행동들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그 결과로써 성도와의 연합이 온전히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 6. 결 론

기독론 중심의 신학자 바르트에게 영향받은 니젤, 파커와 같은 칼빈학자들은 종교개혁자의 작품 안에서 칼빈의 신론을 그의 기독론의 배경으로 여기는 환원적 읽기를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기독론의 강조가 신론을 약화시키거나,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하지 않는다. 반대로 신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기독론을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초월적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 존재 안에 내재하신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초월성은 유한한 인간성에 비춰 언제나 유지된다. 신중심주의와 기독론 중심주의는 비록 종교개혁자의 신학에서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상호 환원 없이 각자의 고유한 자리에 정당하게 놓여야 한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칼빈신학의 양극 중의 하나로, 신중심주의와 한 쌍을 이룬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관점 안에서 그의 자리를 가진다. 성부는 선택과 그리스도의 파송으로써 ‘구원의 원천’이고, ‘구원의 질료’(내용)로써 성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스도는 객관적 구속을 위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을 우리에게 주관적 내적 구속으로 적용시킨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 그의 통치를 시행하신다.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밖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신다.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적이고, 영적이며, 성스럽고, 거룩하고, 지속적이며, 종말론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칼빈에게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최고 선’이며 ‘궁극적 행복’이다.<sup>83)</sup> 그리스도의 신성이 신성의 속성

과 함께 육체 밖에 온 우주에 계신 것과 같이,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도의 속성과 그리스도 인격의 속성이 유지되면서 연합한다. 그러므로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체적이라는 것은 흔들릴 수 없고, 침해받을 수 없으며, 분리될 수 없는 것, 즉 믿음의 확실성, 구원의 확실성, 성도의 견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동일시, 흡수는 아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중은혜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의, 그리고 성화의 은혜를 낳는다. 칭의와 성화는 단계적 순서도, 루터의 주장처럼 성화가 칭의 안에 종속되는 것도 아닌, 이중적이며 동시적이다. 칭의받은 성도는 동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을 염원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그 연합이 시작된 것처럼, 그 수단으로 그것을 견고히 하며 심화한다.

칼빈의 신학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기독교 신앙과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기독교신학이 사색적이며, 이론적인 영역에서가 아닌,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의 만남, 경험을 강조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칭의론을 강조하는 루터에 비해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와 그것을 실현하는 성령의 신학을 강하게 발전시켰다. 이것은 바로 칼빈이 성도의 ‘구원 사건의 내재성’(*l'intériorisation de l'événement du salut*)을 누구보다 더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믿음의 지식의 정점(*le sommet*)에 있다.<sup>84)</sup> 구속의 역사는 이 연합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공동체를 변혁한다.

83) *IRC* III,xxv,12.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자신 안에 보유하시며 다함이 없는 생명 샘과 같으시다면, 최고 선과 행복의 모든 요소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할 수 없다…… 만일 주께서 그의 선택된 자들에게 그의 영광과 권능과 의를 나누어 주시며, 더구나 자신을 그들에게 주셔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면 이것은 모든 위엄을 능가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의 영역 아래 모든 행복이 (*tous biens, omne felicitatis genus*) 포함됐다고 생각해야 한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곳이다.”

84) *Commentaire sur l'Evangile de Jean* 17, 25, 17, 21.

### 주제어

Divine Majesty, Unio mystica, Sursum corda, Double grace,  
Means of grace

### 참고문헌

-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 Baum, E. Cunitz, E. Reuss, 59 vol. Brunswick puis Berlin : C. A. Schwetschke et Fils, 1863–1900.
-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1541), ed. Oliver Millet, 2 vol. Genève : Droz, 2008.
-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1560), ed. J.-D. Benoît, 5 vol. Paris : Vrin, 1957–1963.
- Adjemian Christian, “L’union en Christ chez Calvin,” *Actualité de Jean Calvin 1509–2009*, Lausanne : L’âge d’homme, 2009, 177–199.
- Billings J. Todd, “John Calvin’s Soteriology : On the Multifaceted Sum of the Gospel,” in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vol. 11, n° 4, 2009 : 428–447.
- Cornuz, Michel, *Le Protestantisme et la Mystique Entre Répulsion et Fascination*, Genève : Labor et Fides, 2003.
- Craig B. Carpenter, “A Question of Union with Christ? Calvin and Trent on Justific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vol. 64, n° 2, 2002.
- Fatio Olivier, “La conception du salut chez Calvin,” *Le salut chrétien, sous la direction de Jean-Louis Leuba, Jésus et Jésus-Christ* 66 (collection), Paris : Desclée, 1995, 167–176.
- Fisk Philip, “Calvin’s Metaphysic of Our Union with Christ,” in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vol. 11, n° 3, 2009 : 309–331.

- Garcia Mark A. *Life in Christ : Union with Christ and Twofold Grace in Calvin's Theology*. Milton Keynes : Paternoster, 2008.
- Keller Carl-A. *Calvin mystique : au cœur de la pensée du Réformateur*, Genève : Labor et Fides, 2001.
- Kennedy Kevin Dixon, *Union with Christ and the Extent of the Atonement in Calvin*, New York : Peter Lang Publishing, 2002.
- Lehmkuhler Karsten. "Sanctification et vie dans l'Esprit." *Introduction à l'éthique*, Sous la direction de Jean-Daniel Causse et Denis Müller, Genève : Labor et Fides, 2009 : 239–258.
- McGrath Alister E. *Iustitia Dei*,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Millet Olivier. *Calvin : un homme, une œuvre, un auteur*, Paris : infolio, 2008.
- Niesel Wilhelm. *Die Theologie Calvins*, München C. KAISER, 1957.
- Partee Charles. "Calvin's Central Dogma Again."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18. 1987 : 191–199.
- Spijker, Willem Van't. "EXTRA NOS' and 'IN NOBIS' by Calvin in a Pneumatological Light." in Peterde klerk (éd) *Calvin and the Holy Spirit*, 1989. 39–61.
- Stauffer R. *L'humanité de Calvin*, Cahiers Théologique 51, Neuchâtel Editions, Delachaux et Niestlé.
- Strohm Christoph. "La Théologie Calvinienne : Singularité des Idées Fortes." in *Religions & Histoire*. Hors-série. n° 1 : Jean Calvin, un Christianisme Réinventé, 2009. 34–37.
- Tamburello Dennis E.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Bernard of Clairvaux*. Louisville : Westminster John Knox, 1994.
- Willis-Watkins E. David. "The Union Mystica and the Assurance of Faith According to Calvin." ed. Willem van't spijker. *Calvin : Erbe und Auftrag*, Festschrift für W. H. Neuser, Kampen, Kok Pharos Publishing House, 1991. 77–84.

- Wendel F. *Calvin : Sources et E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s*. Paris : Presse universitaires de France, 1950.
- Zachman Randall. *Communion cum Christo*. ed. Herman J. Selderhuis, *The Calvin Handbook*. Michigan : Eerdmans, 2009. 365–371.